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3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49:1-3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14장(새 26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117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전쟁과 경제위기, 기근과 재난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모든 이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13:31-35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봉 헌(offering) 369장(새 218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66장(스크린참조)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3. 오늘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4.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과테말라 선교사이신 서진국장로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요한복음 13:31-35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작은 자들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33절)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며,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35절) 나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신분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제자이다'라는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의식과 제자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내적 증거와 외적인 삶의 열매가 없음에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겠거니 하며 영적으로 안일하고 태만한 삶의 태도로 일관된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를 향한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자기부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희생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